

사회

동광주 나들목 순천방향 폐쇄 1주일 ... 홍보·안내판 부실

유턴·끼어들기·후진 차량 '복새통'

교통사고 빈발... 대형 현수막 설치해야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순천방향 나들목 진입로가 폐쇄된 지 1주일...

트 장애물이 설치돼 있었고, 이를 본 차량 운전자들이 후진으로 빠져나오는 등 다른 차량과 뒤엉키면서 복새통을 이뤘다.

을 가려고 했는데, 진입로가 폐쇄돼 있는 것을 보고 후진으로 빠져 나왔다"면서 "주변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회도로와 진입로 폐쇄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광주에 일을 보러온 옥모(36·순천시 조례동)씨는 "동광주 나들목 순천방향에 폐쇄된 줄 몰랐다. 내비게이션만 믿고 진입했다가 되돌아나오지 못해 엉뚱 나들목으로 빠져 나가기를 두 번째 하고 있다"며 "수백m 전방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동광주 나들목에서 문흥 나들목까지 안내표지판 6개와 플래카드 4개가 설치돼 있다. 운전자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대로 운전할 하다 보니 못보고 무심코 지나친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나들목 순천방향 진입로가 폐쇄된 지 6일째인 23일 광주시 북구 동광주 나들목 진입로. 폐쇄 사실을 모른 채 진입했다 후진 하려는 차량과 일반 차량이 뒤엉키면서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이 일대 교통이 복새통을 이루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땅값 대부분 납부... 시유지 주차장 임대 무단점유 아니다"

광주지법 "변상금 부과 위법" 판결

광주시가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땅값'의 대부분을 납부한 계약자들에게 수억원대의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한 데 대해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강신중)는 23일 윤모씨 등 13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는 윤씨 등에게 부과한 변상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해당 토지의 중도금을 완납했으나, 극히 일부만 납여둔 상태인만큼 이 땅을 주차장으로 쓰도록 한 것은 무단 점유로

볼 수 없다"며 "시의 변상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윤씨 등은 1994~1998년 시로부터 삼부지구 땅(8천870㎡)을 1인당 3억~14억원에 분할 매수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 용지 등으로 임대했다.

이후 윤씨 등은 시가 매매대금 중 1인당 5만~9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8월 1인당 1천600여만~5천600여만원, 총 4억1천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前 군수 비방 혐의 피소 전완준 화순군수 무혐의

검찰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시되는 전(前)군수를 비방한 혐의로 피소된 전완준 화순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23일 임호경 전 군수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전완준 군수를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군수가 주장한 고소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벌였으나 의도적인 비방에는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임 전 군수는 "내가 군수로 재직할 당시 화순군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공직기강이 흐트러졌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녔다"며 지난 7월 전완준 군수를 고소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日 정부 근로정신대 할머니 7명에

후생연금 1인당 고작 1,300원 지급

"사죄는 커녕 우롱하다니..."

유족·단체 강력반발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광주·전남 출신 근로정신대 할머니 7명에게 64년만에 1인당 99엔(한화 1천300원)의 후생연금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되자 유족들과 관련 단체들이 "사죄는 커녕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청구인과 이들을 돕는 시민단체는 상당 수령을 거부하는 한편, 24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23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양금덕(78) 할머니 등 8명의 근로정신대 할머니 및 유족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지난 1998년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을 청구했다.

일본 사회보형청은 최근 이들 가운데 후생연금 가입이 인정되는 7명의 청구인 뒤편으로 1인당 99엔씩 수당을 지급했다. 수당은 이달 중순 일본에서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나고야 소송 지원

회'의 은행 계좌로 입금됐다.

탈퇴수당은 수급 기간에 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후생연금을 탈퇴할 경우에 지급하는 돈으로, 당시 급여체계 및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액수를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국인 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지난 9월 8명의 근로정신대 할머니 가운데 전쟁 동안 사망해 가입 기간 기준을 채우지 못한 1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 일본정부는 1944년 10월부터 1945년 8월까지 11개월간 연금을 가입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한 일본 정부, 특히 '과거사를 직시할 용기가 있다'는 하토야마 정권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이제야 알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지난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공부도 시켜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일본인 교장의 피임에 속아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렸으며, 해방 후 한국에 돌아와서는 '일본에 가서 몸 버린 여자'라는 오해 속에 살아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살신성인' 종업원

목포 모텔 화재 불끄려다 숨져

목포의 한 모텔 종업원이 객실 복도 천정에 난 불을 끄려다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종업원 고모(24·목포시)씨가 목포시 상동 G모텔 7층 객실 복도 천정에 서 불이 난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시각은 지난 22일 오후 7시55분경. 당시 고씨는 1층 카운터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이 모텔에는 총 9대(주차장·각 층 복도 등)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이곳에서 일한 지 한 달째인 고씨는 카운터 내 CC-TV 모니터로 발화 지점을 확인한 뒤 곧장 소화기를 들고 승강기에 올라갔다. 당시 이 모텔에는 여주인과 투숙객 등 15명 가량이 머무르고 있었다. 고씨는 7층에서 내려가자 혼자서 진화에 나섰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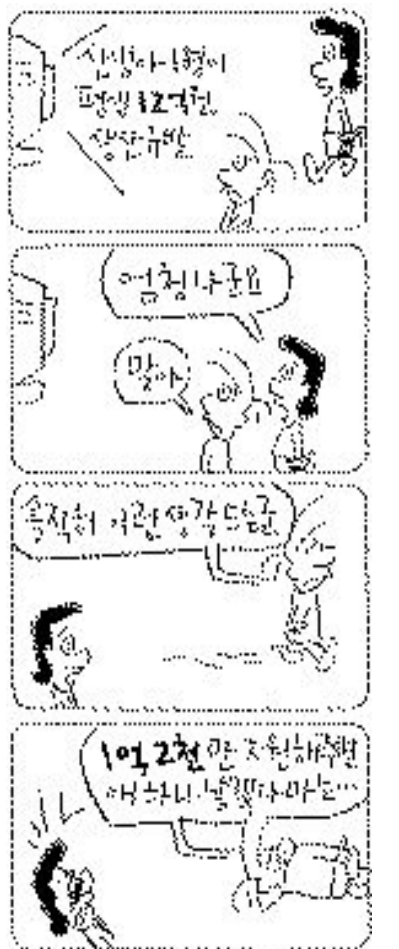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불을 끄려다 지친 고씨는 화재현장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그러나 고씨의 적절한 초동 진화 조치로 불길은 더 이상 번지지 않았고, 투숙객들도 무사히 모텔을 빠져나가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불로 불에 탄 면적은 건물 전체 1천200㎡ 중 80㎡(벽면 그늘림 피해 포함)로, 3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한 결과, 7층 복도 천정고 승강기에 올라갔다. 당시 이 모텔에는 여주인과 투숙객 등 15명 가량이 머무르고 있었다. 고씨는 7층에서 내려가자 혼자서 진화에 나섰다나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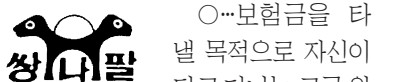


20대 여성 목 졸려 살해된 듯

'20대 여성 실종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서부경찰은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모 통신회사 직원 K(여·26)씨의 사인(死因)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라고 밝혔다. 경찰은 K씨의 목 부위에 혈흔이 남아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누군가에 의해 목 졸려 살해된 뒤 유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

보험금 타려 외제차 허위 도난신고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신이 타고 다니는 고급 외제 승용차가 도난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30대 남성이 경찰서형.

○2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모 금융회사 직원 N(33)씨는 지난 9월 4일 광주시 북구 두암3동 주민센터 앞길에 주차한 자신의 벤츠 승용차가 사라졌다며 거짓 신고해 보험사에 8천500만원을 청구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N씨는 지난 5월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한 외제차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150만원에 사들인 뒤 등록 절차를 밟아 보험에 가입.

○N씨는 또 보험사에 승용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같은 종류의 차를 대여해 차량 등록 당시 받았던 번호판을 바꿔 단 것으로 조사. /이종행 기자 golee@

Large advertisement for '국립학점' (National Credit)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erson and text about credit services and interest rates.